

# 윤장현 보이스포싱 피해...정부, 5·18 헬기사격·성폭행 인정

〈전 광주시장〉

##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무산 위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국내 정권체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사업이 최종 타결 일보 직전에 논의가 중단됐다. 광주 시와 현대차, 노동계는 최종 협상안을 놓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사실상 5년간 미루는 독소조항 삭제 문제를 놓고 현대차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현대차 노조와 민노총의 반발마저 거세지면서 전체 협상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 전두환 내년 1월 광주서 재판

올해 정부는 처음으로 5·18 당시 헬기사격과 계엄군의 민간 여성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육군은 헬기를 상대로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17건을 확인했다. 정부 발표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소에 근거가 됐다. 전씨는 내년 1월 7일 광주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윤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는 보이스포싱법 김모(여·50)씨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뜯겼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소개한 뒤 취업에도 도움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7일 사기·사기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윤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절 차용증도 없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M건설 대표에게 빌린 점에 주목하고, 대가성 여부 등도 수사중이다.

## 6·13지방선거 광주·전남서 민주당 압승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며 텃밭 호남의 맹주로 등극했다. 광주에서는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표표를 획득,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2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전남은 22개 지역 중 8곳(36.4%)에서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앞서면서 여당이 예상 밖의 고전을 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 모두 접전 끝에 광주에서는 3선의 진보 교육감이, 전남에서는 조선 진보 교육감이 각각 탄생했다.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도입 건설 찬성

광주시는 올해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론화 제도가 시행됐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참여단을 꾸렸고, 최종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78.6%로 반대(2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분개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 2002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 16년간 오락가락한 행정과 전면 백지화 논란과 반복, 건설 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끝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정상화됐다.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헬기가 낮게 날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까지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광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를 찾은 외국인들이 1전시관(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수목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판매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 이전 합의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사상 첫 50만 명 돌파도 이슈다. 광주 민간공항은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된다. 지난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상생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광주시는 공항 통합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통합에 대비한 활주로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도 진행되고 있다. 또 무안국제공항의 노선이 확대되면서 이용객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 금호타이어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

금호타이어의 주인이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 바뀌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차이웅선 더블스타 회장을 이사(비상무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비전 선포식을 통해 글로벌 탑 10 타이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故) 박인천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광주여객 타이어 구입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0년 설립한 토종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가 58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해외 경쟁 심화로 인한 영업오더 축소 등으로 내년 전망은 순탄치 않다.

## 근로정신대 피해자 日 전범기업 상대 잇단 승소

74년 만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광주 출신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근로정신대 2·3차 항소심도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외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교육계 잇따른 '스쿨 미투'·시험지 유출 곤혹

올해 광주·전남 교육계는 시험지 유출과 '스쿨 미투'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지난 7월 광주 한 사립고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목포, 지난 6월 여수의 고교에서도 시험지 유출 사실이 드러나며 학교의 시험지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광주지역 고교 3곳과 중학교 1곳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다.

## 전남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광주비엔날레도

전남도는 올해 으뜸 시책으로 국제수목비엔날레를 꼽았다. 전통회화를 테마로 국내 최초로 열린 국제수목비엔날레는 두 달 동안 29만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등 예향 전남의 문화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수목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한꺼번에 잡았다는 평가다.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열린 2018 광주비엔날레는 66일간 32만명이 다녀갔다. 특히, 북한미술전과 광주정신의 지속가능한 역사·담론의 시각화를 위한 신작프로젝트 'GB커미션'은 화제를 모았다. /박정욱·박진표 기자 jwpark@kwangju.co.kr

##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브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